

# '천만임실' 테마 이벤트 눈길

### 임실군청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 등 4행시 높은 호응

임실군의 관광과 군정 홍보의 효과 역할을 하고있는 SNS 채널이 새해를 맞아 '천만임실'을 테마로 한 이벤트를 실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민선 8기 핵심 아젠다이자 올해 중점목표인 천만관광 임실시대 실현의 의지를 담아 SNS를 통한 '천만임실' 4행시 짓기 이벤트를 기획,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벤트 시작 5일 만인 12일 현재까지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의 조회수는 3만여 회에 달하며, 댓글도 300여 개를 넘어서고 있다.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갑진년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실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는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 임실군청 SNS 채널 구독과 좋아요 및 4행시 댓글 참여 인증샷을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면 참여 가능하다.

특히, 4행시 댓글에는 '천=천혜의 자연이 빛어낸 최고의 불거리 먹거리와, 만=만인이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추억과 힐링이 있기에, 임=임실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언제나 설렙니다, 실=실제로 다가온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응원합니다.'와 같은 댓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군은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총 200명을 선정해 '임실 스타 트링치즈(10P)'를 제공한다.

당첨자는 오는 24일 발표되며 임실군청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실군청 SNS는 임실N치즈축제, 임실N스타 등 지역 축제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며 임실군과 지역 축제를 홍보하는 '일등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56만여명이 찾은 임실N치즈축제와 지난해 유료 입장을 시작한 3월부터 40만여 명이 방문한 옥정호 출렁다리, 4만여 명의 코스모스 군락지, 사선대, 성수산, 오수 의견관광지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며,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청 SNS가 군의 좋은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임실N치즈축제와 옥정호 등 임실군 대표 축제와 관광지 등 홍보대사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해에도 천만관광 임실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2023 고향사랑기부금 8억7000만원 모금

### 전북 1위 달성 기쁨

순창군이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첫 해 기부금 8억7,000만원 모금하며 전북도내 1위를 달성하는 기쁨을 토했다.

지난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4,288명이 고향사랑기부금 8억7,000만원을 기부해 당초 목표액인 5억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로써 순창 출신 출향인들의 고향 사랑이 전북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전체 모금액 중 지난 12월 모금된 기부금은 약 44%에 해당하는 3억 7천만 원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는 연말을 맞아 가장 많은 기부금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제공된 답례품은 총 3,373건, 1억 6천만원 상당으로 '천년의 장맛'으로 평가되는 순창고추장 등 장류제품, 겨울 제철을 맞은 두릅·딸기 등이 많은 기부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특히 고액 기부자의 경우 순창사랑 상품권을 주문하여 고향마을 어르신 자치 등 2차 나눔을 실천, 연말 지역 사회에 훈훈하게 온정을 나누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군은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원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

터 전담팀을 구성하여 순창군 생활민중 수여 조례 제정, 답례품 발굴 등 사전 준비를 조기에 마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시기별로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로 모금에 주력한 결과 목표 대비 많은 기부금이 모금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주신 전국에 계신 기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보내 주신 소중한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군민이 진심으로 원하고 파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에서는 2024년도 한 해 농사를 위한 '2024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대면으로 1월 4일부터 2월 21일까지 진행되었으나 2024년은 설 명절 전에 모든 교육을 완료할 계획으로 전문작목교육, 찾아가는 읍면별 교육, 여성농업인 안전교육이 진행된 다.

교육은 사과, 포도(사인, 캠펠), 복숭아, 딸기, 양봉, 염소, 만감류, 복분자, 토양관리까지 총 10과목 13회로, 찾아가는 읍면별 교육은 농기계 안전교육,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등에 대해 총 17회, 여성농업인 안전교육은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작년과 다르게 전문작목교육은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하였고 같은 과목을 2회 하더라도 내용이 다른 교육을 편성(ex. 사과, 포도)하여 농업인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읍면별 교육은 작목교육이 아닌 농기계 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과 공익직불 의무교육으로 편성하였다.

한편 새로 신설된 여성농업인 안전교육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시 안전교육과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으로 진행되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남원시민 또는 남원시 귀농예정자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따로 교육을 신청하지 않고 원하는 작목, 시간대에 와서 들을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하거나 농업인교육팀(063-620-8015)이나 각 읍면별 농민상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주요 핵심사업과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정하고 공유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 남원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마무리

### 적극적인 대민 홍보 당부

남원시가 2024년 남원시의 주요 핵심사업과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정하고 공유하기 위해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2일까지 시장 주재의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전체 부서가 참여, 관례적이었던 각 부서장의 일방적인 보고가 아닌 팀장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느낀 점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보고하며 시장과 허심탄회한 소통을 전달하고 시장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변화된 자리였다.

특히 이번에는 23개 읍면동도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시민과의 접점에 있는 읍면동 직원들까지 참석한 업무보고를 진행하여 각 지역 현안 및 주요 시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당부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로 진행했다.

최경식 시장은 2023년 거둔 성과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2024년 시장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과소, 읍면동 전체 부서가 업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내부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며, 22일부터 시작하는 시민공감 열린대화를 통해 외부소통에도 힘써 지역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저소득 위기 가정 맞춤형급여 지원

### 올해 중위소득 인상 따라 혜택 가구 늘어날 듯

남원시가 정부의 약자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정책 확대에 발맞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정에 대한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를 지원하게 된다.

이 제도는 시행 24년 만에 가구 기준 중위 소득과 생계급여 등의 지원 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 등을 지원한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2023년 대비 4인 가구는 13.16%, 1인 가구는 14.4%가 인상되어 혜택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4인가구 기준 162만289원→183만3,572원)로, 주거급여는 47%에서 48%(4인가구 기준 253만8,453원→275

만358원)로, 교육활동 지원비는 최저 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 수준이며,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인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고소득 1년역원, 고재산 9억원은 제외)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남원시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올해 변경된 기준 등을 읍면동 홍보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관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 설 맞이 재래시장 음식점 위생점검 실시

순창군이 다가오는 설 명절 맞이 귀향객 및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순창읍 재래시장 및 주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3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위생점검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또는 사용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식품취급시설 내부 청결관리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하고, 불법영업 등 위반 사항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행정처분 확정업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 형사고발, 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농식품부 GAP 위생시설 공모 최종 선정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4,6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수확된 농산물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위해 농산물 우수 관리시설의 위생 설비를 보완·강화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는 전북에서 총 5개소가 선정해 서면심사와 분야별 전문위원의 현장평가 등의 경쟁 끝에 남원시의 지리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선정(최종 3개소)되었다.

지리산농협 정대환 조합장은 "올해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으로 포도 선별장에 냉난방기 개보수와 전동 보수를 진행해 수확된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을 더욱 위생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